

## 위암 수술 후 발생한 양성 소장 폐쇄

포천중문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sup>1</sup>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안대호, 노성훈<sup>1</sup>, 이경포, 이경식

(목적) 위암수술 후에 발생한 소장폐쇄의 임상적 특징에 대한 분석.

(대상) 1995년 3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분당차 병원 외과에서 위암으로 수술을 받은 392명의 환자 중에서 수술 후에 발생한 소장폐쇄 환자 34명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전체 392명 중 349명이 위 절제수술을 받았고 43명이 비절제 수술을 받았다. GIST를 제외한 나머지 전 절제 예에서 대망절 제술과 임파절 곽청술을 시행 하였다. 위아전절제술의 재건은 위공장문합술 또는 위공장문합술과 Braun 문합술로 하였고 위전절제술의 재건은 Roux-en-Y 식도공장 문합술로 하였다. 추적기간은 4 개월에서부터 71개월 사이였으며, 암의 재발에 의한 소장폐쇄는 본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결과) 20명의 남자 환자와 14 명의 여자 환자의 평균 연령은 60세 였다. 수술 후 발생한 소장폐쇄는 전례 위절제술을 시행 받은 환자에서 발생하였다. 원인 질환별 빈도를 보면 위선종 31명 (31/337), 위임파종 2명(2/3), 위carcinoi종양 1명(1/1)이었으며 대망절제나 임파절 곽청을 시행하지 않았던 GIST환자 10명 중에서 소장폐쇄는 발생하지 않아서 34명 모두 위절제술, 대망절제술 및 임파절 곽청술을 시행 받은 환자에서만 발생 하였다. 첫번째 소장 폐쇄의 발생 시기별로 분류 해 보면 34명 중에서 8명은 수술 후 1개월 이내에, 14명은 수술 후 1 내지 12개월, 12명은 1년 이후에 발생 하였다. 폐쇄의 재발율을 보면 34명의 소장폐쇄 환자 중에서 24명의 환자가 1회, 6명은 2 회. 3명은 3회의 폐쇄를 경험하였고 수술을 계속 거부한 1명의 환자는 10회의 반복 폐쇄를 경험하였다. 첫번째 폐쇄에 대해서 비수술적 치료를 받은 22 명의 환자 중에서 13명은 폐쇄 후 1 내지 2 일 사이에, 8명은 3 내지 5일 사이에 폐쇄가 풀렸다. 22명 중에서 10명에서 폐쇄가 재발되었다. 폐쇄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한 13명의 수술방법은 1명의 A-loop 폐쇄와 와 3명의 E-loop 폐쇄 환자에서 Braun 문합술, 3명에서 유착 박리술을, 6명에서 소장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수술을 시행한 환자 13명 중 아직까지 폐쇄가 재발된 경우는 없었다.

(결론) 위암수술 후 소장폐쇄는 전례 위절제술, 대망절제술 및 임파절 곽청술을 시행 받은 환자에서만 발생하였다. 첫번째 소장폐쇄에 대해서 수술을 시행하지 않았던 22명 중 10명에서 소장폐쇄 가 재발이 되었으며 수술을 시행한 13명 중 재발된 경우는 없었다. A-loop 및 E-loop 폐쇄의 방지를 위해서 단순한 위공장 문합술 보다는 위공장 문합술에 Braun 문합술을 추가하거나 위십이지장 문합술 또는 Roux-en-Y 위공장 문합술을 고려해볼 수 있겠다.